치치가 먹고싶어한다는 핑계로
감우에게 야자 우유를 부탁해 보았다.

그 아이...
그 불쌍한 아이를
위해서라면...
하지만...
이렇게
부끄러운
모습으로는...
으응..♥
으응..♥
쭈-♥

으윳..
쭈삣
쭈삣

그...
그렇게
빤히
쳐다보시면...
부들
부들

이후 도저히 참을수 없어
둘이서 엉망진창으로 해버렸다